

한국 문학사 교육을 위한 한국 현대 문학작품  
선정 연구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南燕

(중국 북경대학교)

**Yeon Nam. 2015. A study on the Selection of Modern Korean Literary Works used in Korean Literary History Education -For Korean Major Students in China.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6-3: 73-115.** Considering the lack of the studies about the selection and bibliograph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used in Korean literary history education which focuses on the Korean major students in China and a series of questions existed in the existing textbooks, this paper is aimed at studying out the list of the modern Korean literary works service to the education of Korean literary history.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chapter 2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and goals of Korean literary history education which aims at the Chinese college students, and puts forward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selecting the Korean used in the education of Korean literary history applicable to practical teaching. In pursuit of efficiency, this study does not focus on the research monograph of Korean literary history, but prefers to compare the existing 11 kinds of Chinese textbooks of literary history and literature readings textbooks with Korean high school textbooks namely Literature and Korean, as well as the bibliograph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used in Korean literary history education to make an analysis of the bibliography. On the basis of the study in chapter 3, chapter 4 sorts out the selected firsthand Korean literary works used in the education of Korean literary history, and puts forward the direction of selecting the supplementary works. The supplementary works should be selected with the reference to the literary works contained in the textbooks both in Korea and China. If it is difficult to select, it should be in line with notion that Chinese students ought to share

the same literary experience with Korean students to select referring to the list of all the literary works includ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first puts forward a feasible list of Korean literary works used in Korean literary history education and offers some important suggestions.

**주제어:** 중국 대학생(**Chinese college students**), 한국 문학사 교육(**Korean literary history education**), 한국 현대 문학작품 목록(**Modern literature bibliography of Korea**)

## 1. 서론

중국 대학교 한국어과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문학교육은 대체로 두 가지 층위다. 하나는 ‘기초한국어’나 ‘고급한국어’란 ‘한국어’ 과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문화 능력 신장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문학을 통한 문학 교육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 문학사(한국 문학작품 選讀)’란 ‘문학’ 과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문학 원리에 입각한 문학 능력 신장과 한국 문학 특질에 대한 이해를 일차적 목표로 하는 문학 자체에 대한 문학교육이다.<sup>1)</sup> 한국 문학사는 비록 선택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중요한 위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sup>2)</sup>

첫째, 한국 문학사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로서 필히 알아야 하는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한국 문학작품을 문학사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알아 보고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둘째, 문학사 교육을 통해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학사적 사전 지식(스키마)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 문학사에

1) 북경대학교와 같은 일부 대학교의 교과과정에는 ‘한국 문학사’ 외에 ‘한국 문학작품 선독(選讀)’이란 선택과목도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문학이 어렵다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사실상 두 과목 중 하나만 개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애초에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개설하려 했던 이 두 과목을 하나로 합쳐 강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어느 과목으로 개설되든 문학사적 지식과 작품 읽기 교육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2) 남연(2012:151-156)에서 구체적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서는 왜 이런 내용을 다루었을까,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을까 등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문학사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변천 과정을 실감나게 이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보완적 이해를 갖게 할 수 있다. 넷째, 문학사 교육을 통해 한국 문학, 한국 문화에 대한 문학적, 문화적 소양을 길러 줄 수 있다.

중국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sup>3)</sup>을 위한 한국 문학사 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구체적 작품 체험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장황한 문학사적 평론 및 작가, 작품 평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학비평사적 문학사 학습보다는 작품 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실체적 문학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인 중국 대학생들의 한국 문학작품 체험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이다.<sup>4)</sup> 따라서 효과적인 한국 문학사 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학사 교육용 작품을 선정해 내는 일이다.

한국어 교육용 문학작품 선정에 대한 기왕의 연구를 보면, 작품 선정 기준에만 초점을 둔 거시적이거나 이론적인 연구<sup>5)</sup>에서부터 장르별 작품 목록화 연구<sup>6)</sup>, 작품 위계화 연구<sup>7)</sup> 등으로까지 구체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한국어 언어 능력 및 문화 능력 신장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작품 선정 연구가 대부분이고, 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 연구<sup>8)</sup>, 문학사 교육

3) 이하 중국 대학생으로 약칭한다.

4) 초등 과정부터 장시간에 걸쳐 일상적으로 많은 문학작품을 접해 온 한국어 모국어 학습자와 달리 중국 대학생은 단지 한국문학사 교육에 앞서 일 년, 많어도 일 년 반 동안 한국어강독 시간에 한국 문학작품 몇 편만을 접할 뿐이다.

5) 관련된 연구는 윤영(1999), 서영빈(2001), 윤여탁(2000), 박청(2001), 김보경(2002), 남연(2005), 남연(2009), 남연(2011), 김청아(2011), 양진(2011) 등을 들 수 있다.

6) 소설 목록화 연구는 장정숙(2010), 수필 목록화 연구는 김보경(2002), 안경희(2003), 최은영(2005), 시 목록화 연구는 박미향(2011), 고전 서사 작품 목록화 연구는 서희정(2005), 서의연(2012), 소설, 시, 수필, 고전 작품 등 여러 장르 작품에 대한 목록화 연구는 윤여탁(1999), 김대행(2001), 신윤경(2008), 홍서연(2001), 김정우(2009), Frascini, Nicola(2008), 김연실(2009), 남연(2013)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들 연구에는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7) 관련된 연구는 김혜영(2011), 정해권(2011) 등을 들 수 있다.

8) 이는 ‘한국 문학작품 선독’이란 과목을 위한 작품 선정 작업이다.

을 위한 작품 선정 연구는 극히 적으며<sup>9)</sup> 작품 선정에 관한 지역화 연구도 많이 결여되어 있다.<sup>10)</sup>

이 가운데 남연(2005), 남연(2013), 윤여탁·유영미·박은숙(2015)은 관련된 중요한 논의로 들 수 있다. 남연(2005)은 ‘한국 문학작품 선독’이라는 과목을 염두에 두고 이 과목의 구체적 교육 목표, 작품 선정 기준 및 교수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여기서 제시한 작품 선정 기준은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그러나 남연(2005)에서는 작품 선정 기준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작품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또한 선정 기준에는 학습자의 특징 및 학습 여건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남연(2013)은 한국어 교육에서 차별화되면서 또는 유기적인 통합을 이룬 문학작품의 선정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sup>11)</sup> 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을 지향하는 시 작품 선정 및 목록화를 시도하였는데, 이 역시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소설 없이 시 장르에만 한정하였기에 문학 교육용 작품 선정 목록의 전모를 보여 주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는 중국 대학생을 위한 문학사 교육의 특징을 고려한 작품 선정 논의를 구체화시키지는 못한 면이 있다. 또한 최근에 나온 윤여탁·유영미·박은숙(2015)의 연구는 한국, 미국, 중

9) 국가나 지역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르고 교육과정의 목표나 설정이 다르니, 마찬가지로 작품 선정에 관한 요구도 다를 수밖에 없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한 작품 선정에 관한 지역화 연구가 필요하다.

10) 이러한 실정은 대부분의 연구가 언어문화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문학 자체에 대한 학습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은 한국 국내의 한국어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1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과목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문화 능력 신장을 지향하는 도구로서의 문학교육이 있고, ‘문학사(문학작품 선독)’란 ‘문학’ 과목에서 문학 원리에 입각한 문학 능력 신장과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일차적 목표로 하는 본격적 문학교육이 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하는 이 두 가지(두 과목)의 문학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이 각각의 다른 선정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작품 선정의 차별화라는 것이다. 한편, ‘문학’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은 언제나 ‘한국어’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을 바탕으로 행해야 하고 또한 두 가지 문학교육은 함께 한국 문학사의 전모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에 두 가지 문학교육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남연(2013: 787-788) 참조.

국 세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교육, 문화교육, 문학교육(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을 지향하는 한국어교육용 문학작품을 통합적으로 선정하여 목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은 지역화 연구를 시도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하는 작품 목록을 각각 선별하여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문학사 교육용 작품을 별도로 선정하지 못한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한편 한국 문학사 교육용 작품 선정 연구 작업의 부진과 달리 실제 작품 선정 및 목록화가 이루어진 실제 중심의 문학사 교재나 문학작품 選讀집이 여러 권 편찬되어 있다. 이들 교재가 물론 작품 선정 기준 및 목록화 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크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실제 중심의 문학사 교재의 경우<sup>12)</sup> 시대 구분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들 기존 교재를 살펴보면 대체로 10년 단위로 시기 구분을 하고 있다. 광복 이후 문학의 경우 학자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식민지 시대 문학의 경우 1910, 1920, 1930년대 이렇게 10년 단위로 시기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기 구분이 다를 경우 그에 따라 선정된 작품도 달라질 것이다.

둘째, 작품 選讀집<sup>13)</sup>의 경우, 모두 현대 문학사의 맥락에 따라 작품을 선정하여 만든 교재들로 고급 한국어 교재용 및 문학사 교육용 교재로 편찬되었다. 문학사의 흐름을 대체로 따르고 있지만 문학사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각 시기의 대표작이 균형 있게 모두 선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서의 문학사 전모를 보여 주기가 어렵다. 또한 전룡화(2011)나 윤윤진 외(2006)같이 소설만을 선정하여 수록하거나 시보다 소설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장르 불균형인 교재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셋째, 작품 창작 발표 년도와 시집에 수록되어 출판된 년도가 다를 경우 출판 년도에 따라 선정된 경우가 있다.<sup>14)</sup> 하지만 작품이 해당 시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12) 김춘선 외(2012), 배규범(2011)이 대표적인 교재다.

13) 金京善(1998), 金英今(2008), 신창순(2007), 尹允鎮 외(2006), 全龙华(2011), 韩梅·韩曉(2009), 韩梅·韩曉(2010)는 대표적인 교재다.

상기할 때 해당 시기의 문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또 작품이 창작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역시 작품 창작 발표 년도에 따라 수록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에 이들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목록의 선정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본 연구는 지역화 연구의 일환으로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 대학생을 위한 한국 문학사 교육에서 다루어질 문학작품에 대한 전면적 선정 및 목록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문학사 교육이라면 고전 문학작품도 다루어야 하지만 지면 관계상 본 연구에서는 현대 문학작품만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 2. 한국 문학사 교육용 문학작품 선정 기준과 방법

### 2.1. 중국 대학생을 위한 한국 문학사 교육의 특징 및 목표

중국 대학생을 위한 한국 문학사 교육용 작품 선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학사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작품을 공부하는 학습자의 특징, 실제 수업 시간 등을 포함한 교육적 여건 등을 포함한 한국 문학사 교육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대학생을 위한 한국 문학사 교육의 특징 및 목표는 남연(2012: 148-151, 156-160)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참조하되, 문학사 교육 실정에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추가하여 재정리하도록 할 것이다.<sup>15)</sup>

첫째, 모국어 학습자와 달리 외국인으로서의 중국 대학생은 한국 문학작품 체험이 지극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는 문학사 교육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14) 예컨대, 심훈의 <그 날이 오면>은 1932년에 창작되었지만 1949에 출판된 시집에 수록되어 있다. 배규범(2011)은 이 작품을 1949년의 작품으로 보고 해방 공간의 대표작으로 선정하였다.

15) 일부 내용(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 여덟째)은 남연(2012: 148-151, 156-160)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므로 여기에서는 요점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논문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작품의 가치 평가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한국 문학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문학작품 읽기 학습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작품 선정에 있어 양적으로 풍부해야 함을 요구한다.

둘째, 한국 문학사를 배우는 중국 대학생은 비록 고학년 학생들이지만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한국 문학작품을 원활하게 읽어 나가기 힘들고 한국어로 기술된 문학사적 지식(사회문화적 배경 및 문학 개황의 소개, 문학작품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 등)에 대한 이해도 어려워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어휘 해석 같은 보조 설명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난이도가 적절한 작품을 선정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문학사적 지식에 대한 기술도 가능하면 학습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 문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국어 학습자인 한국인과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이 한국 문학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 모국어 학습자인 한국인에게 한국 문학 학습은 ‘공동체 형성’이란 민족적 목표가 부여될 수 있는 데 반해, 외국인으로서의 중국 대학생에게는 오히려 문학 속에 담겨져 있는 이데올로기와 감정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고 보다는 그런 것들과 결부된 한국 문화, 한국 사회, 한국인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넷째,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한국 문학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작품 체험이나 사전(事前)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이에 학습 전에 한국 문학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한국 문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기대가 클 수도 있다. 한국 문학을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국어(한국학)를 전공하는 이들 대학생들에게 한국 문학의 우수성이나 전형성(전형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작품을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문학의 우수성, 전형성을 실감한 이들은 한국 문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16) 이와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김승환(2002: 73-79)을 참조할 것.

되고, 한국 문학을 널리 홍보하는 데 적극 힘을 기울일 것이다.

다섯째, 한국 문학에 대한 작품 체험이나 사전(事前) 지식이 거의 전무한 학생들이므로 문학사의 연대기별 실체 중심의 문학사 교육이 바람직하다. 한국 문학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사 지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애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작품 배경으로서의 한국의 역사적 상황 및 사회문화 내용이다. 연대기적으로 작품을 선택해 가르친다면 학습자들이 선정된 작품을 통해 작품과 그 작품이 창작된 배경으로서의 각 시대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 및 사회문화적, 문학적 배경 등을 더욱 쉽게 연결시킬 수 있고, 더욱 상세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대기별 문학사 교육<sup>17)</sup>은 정연한 역사 흐름 속에서 문학 현상을 자연스럽게 연관지어 해석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별, 주제별, 장르별 등 여러 방법의 문학사 교육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연대기별 문학사 교육이 이루어진 바탕에서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처럼 연대기별로 작품을 선택·편성하는 것은 학습자가 전반적인 한국 문학 세계를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문화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섯째, 외국인으로서의 중국 대학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중국 문학 체험, 그리고 지식과 비교하는 시각으로 한국 문학을 바라보기 마련이다. 즉 모국어 학습자에 비해서 비교(문학)의 시각으로 한국 문학을 대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작품 선정에 있어서 비교될 만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작품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실제 교수-학습에서도 비교(문학)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중국 대학교 한국어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문학 전공자가 아니니만큼

---

17) 연대기별 문학사 기술 방법(문학사 교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①문학적 기법의 발전 과정이 설명될 수 있다. ②문학적 전통이 일종의 논리 정연한 흐름 속에 놓이게 된다. ③정치의 역사언어의 역사를 포함한 제반 역사의 영향이 그 시대의 문학과 관련될 수도 있다. 그 역(逆)도 같다. ④음악이나 기타 예술 형태처럼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가능태는 문학과 상호 관련될 수 있다(Raymond J. Rodrigues-Dennis Badaczewski, 1979: 31).

문학 이론에 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실제 교수-학습에서는 어려운 문학 이론을 가지고 문학을 접하는 것보다 문학작품 내용 해독 및 내용 감상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교육 내용을 심화시키는 취지에서 쉬운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작품 해독에 문학 이론 지식이 많이 필요한 작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덟째, 한국 문학사를 학습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이므로 구직과 회사 인턴 실습 등의 이유로 문학사 공부를 포함한 모든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것은 문학사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보다 학점 취득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여러 가지 교수-학습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홉째, 한국 문학사 강의 시수가 많이 부족하므로 학생들에게 문학사를 소화하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한국어학과가 한국문학사 강의에 투자하는 시간은 3, 4학년 중 두 학기 주당 2시간, 총 68시간뿐이다. 고전부터 현대까지의 많은 양의 문학사 공부에 턱없이 부족하니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양적인 문제를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교수법에 대한 깊은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중국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 문학사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 문학사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도록 한다. 남연(2012: 156-160)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 문학사의 교육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모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사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문학사 과목은 한국어학과 교과과정 중의 하나로 한국어학과의 교육목표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학과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상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본 결과 한국 문학사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sup>18)</sup>

<표 1>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한국 문학사 교육 목표

문학작품의 수용(읽기 체험)을 병행하여 한국문학의 변천, 한국문학의 특징, 가치와 의미를 이해한다. 대표적인 작품을 읽게 함으로써 한국 문학을 수용하는 문학능력을 기르며, 부차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능력을 신장시키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기본적, 문학적, 문화적 소양을 기르며 한국문학을 사랑하고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가. 개별 문학작품의 수용(읽기 체험)과 설명을 병행하여 기본적인 한국 문학사적 지식(해당 문학 장르나 사조를 등장하게 만든 사회문화적 배경, 장르의 발생과 변천 및 문학 사조에 관한 기본적 지식, 작가 및 작품의 문학사적 의미 등)을 이해하게 한다.

나. 개별 문학작품의 수용(읽기 체험)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 작가 및 작품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작품 수용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문학의 특징, 의미, 가치를 알게 한다.

다. 개별 문학작품의 수용(읽기 체험)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한국 문화(작품 속에 드러난 문화적 요소 등)를 이해하는 문화능력을 신장시키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른다.

라. 개별 문학작품의 수용(읽기 체험)과 문학사적 사실에 관한 설명을 통해 문학적, 문화적 소양을 기르며,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

## 2.2. 한국 문학사 교육용 문학작품 선정 기준 및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문학사 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지만 문학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일반적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이 절에서는 참고할 만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에서 논의한 중국 대학생 위한 한국 문학사 교육의 특징 및 문학사 교육의 목표를 고려하여 문학사 교육용 작품 선정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도록 한다.<sup>19)</sup>

18)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한국 문학사의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남연(2012: 156-160)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19)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일일이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윤영(1999), 서영빈(2001), 윤여탁(2000), 박청(2001), 김보경(2002), 남연(2005), 남연(2009), 김청아(2011), 양전(2011) 등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첫째, 수업 시수, 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한 강의 내용 배정과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작품의 수를 정한다. 보통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눠 각각 한 학기 16주, 주당 2시간의 강의를 한다. 현대 문학사의 경우,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의 백년이 넘는 역사를 16주 안에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대기별 문학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에 현대 문학사의 시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실제 교육 내용을 배정하는 관건이 된다.

현대 문학사의 시기 구분<sup>20)</sup>에 대한 학자별 의견이 다르지만 대체로 크게 개화기 시대(개화 계몽 시대), 식민지 시대, 광복 이후 시기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의 하위 시기 구분에 대해 10년 단위로 하여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문학의 내적 발전 맥락을 고려하여 식민지 시대 전반기(1910년대~1920년대 중반), 식민지 시대 중반기(1920년대 중반-1930년대 중반), 식민지 시대 후반기(1930년대 중반-1945년)로 보는 견해도 있다. 10년 단위로 나누는 시기 구분은 문학의 내적 발전 맥락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문학 발전 양상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해당 시기의 문학이 이루어지는 연유, 문학의 내적 발전 양상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뒤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학생들의 작품 읽기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실제 교수-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작품을 직접 읽고 접하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배정해야 한다. 제한된 수업 시수 안에 최대한 작품 읽기 체험을 넓히는 방법은 바로 과외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자는 것이다. 즉 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에 따라 작품 읽기도 하지만 과외 시간에 읽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식으로 작품 체험을 늘리자는 것이다.<sup>21)</sup>

20) 현대문학 시대 구분에 관한 논의는 권영민(2002), 김윤식·김우종 외(2010) 등을 참조했다.

21) 수강 학생은 대부분이 취업 준비로 바쁜 4학년 학생이므로, 작품 읽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발표를 제대로 해 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하는 발표이고, 최종 성적(평가)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실제 필자의 몇 년간의 수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업 진행에 별 어려움은

또한 장르에 관해서는, 극과 수필, 평론도 중요한 장르이지만 수업 시수의 제한으로 인해 주된 장르인 소설과 시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장르의 작품은 길이가 짧고 내용에 있어서 이해하기도 쉬운 편이니 ‘한국어’과목에서 다루도록 할 수 있다. 시대별로 담당 교수가 강의하는 작품은 소설과 시 각각 1편, 학생들이 발표하는 작품 역시 소설과 시로 균형 있게 배정하는 것이 좋은데, 학생마다 같은 양의 발표를 시키기 위해 소설 1편, 시 1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sup>22)</sup>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작품의 수를 포함한 한국 현대 문학사 강의 계획서의 틀을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표 2> 한국 현대 문학사 강의 계획서

주	시기	작품
1~3주	개화기	신소설 1편 / 신체시 1편
	식민지 시대 전반기	소설 1편 / 시 1편
4주	학생 발표	개화기 소설 1편/ 시 1편 전반기 소설 1편/ 시 1편
	더 읽기	
5~7주	식민지 시대 중반기	소설 1편/ 시 1편
	식민지 시대 후반기	소설 1편/ 시 1편
8주	학생 발표	후반기 소설 2편/ 시 2편
	더 읽기	
9~11주	해방기	소설 1편/ 시 1편
	1950-1960년대	소설 1편/ 시 1편
12주	학생 발표	1950년대 소설 1편/시 1편 1960년대 소설 1편/ 시 1편
	더 읽기	
13~15주	1970년대	소설 1편/ 시 1편
	1980년대 이후	소설 1편/ 시 1편
16주	학생 발표	1990년대 이후 소설 2편/ 시 2편
	더 읽기	

없을 것이다.

- 22) 실제 수강인원에 따라 학생들이 발표하는 작품 수를 조절할 수 있고, 또한 학생들에게 시나 소설만을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수강인원이 적을 경우 두 번 내지 세 번을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6주 강의는 대체로 4주를 한 단위로 수업 배정을 하고 있다. 즉 셋째 주까지는 교수가 강의하고, 넷째 주는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발표 준비 시간을 넉넉히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 시대별로, 담당 교수와 학생별로 각각 소설과 시 1편을 강의하거나 발표할 수 있게 배정하고 있다. 즉 원칙 상 시기마다 소설 2편, 시 2편을 선정한다. 단, 식민지 시기 중반기와 해방 공간의 경우, 작품 창작 양상이 상대적으로 단일하거나 문학사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시대별 소설과 시 1편씩을 선정하기로 한다. 이와 달리 식민지 시대 후반기의 경우 창작 양상과 작품 수가 다양하므로 발표 작품 수를 늘릴 수 있다. 그리고 해방 공간부터 60년대까지는 세 시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의 제한으로 각 시기의 작품 모두를 수업시간에 담당 교수에 의해 강의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작품 양상을 보고 어느 시기의 작품을 정할지를 결정한다. 또는 13주~16주의 경우, 시간의 부족으로 70, 80년대 작품 대신 90년대 이후(2000년대 포함)의 작품을 발표하게 하여 작품 양상을 모두 보이도록 피해 본다. 작품의 ‘더 읽기’의 작품은 응당 수업 시간에 다루어야 하지만 시간제한으로 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가 강의하지 못하고 학생들에 의해 발표하지도 못한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은 상대적으로 읽기가 쉽거나 문학사적으로 그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더 읽기 작품으로 해 두는 것이다. 예컨대, 해방 공간의 문학은 전체 문학사로 볼 때 그 문학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들 작품을 제한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대신 더 읽기 작품으로 해 둘 수 있다. 더 읽기의 작품 수는 해당 시기의 문학 양상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소설 16편, 시 16편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각자 다를 수 있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주어져야 하고, 또한 선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단 시기마다 2편씩 선정해 내도록 하고, 작품 양상이 다양한 식민지 시대 후반기의 경우 소설과 시를 각각 3편씩 선정해 낸다.

둘째, 각 시기별 창작 경향의 분류에 따라 작품을 선정하며, 또한 강의 작품과

발표 작품, 더 읽기 작품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선정되어야 한다. 즉 각 시기의 작품 경향이 다양한데, 강의 작품과 발표 작품, 더 읽기 작품은 각각 이들의 작품 경향을 보여 주며, 이로써 이 시기의 전체 작품 양상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어떤 경향의 어떤 작품을 교수가 강의한 작품으로 할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학생들이 발표한 작품으로 할지의 문제는 구체적 작품의 양상에 따라 정해야 한다. 이는 뒤의 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와 같은 문학 창작적 경향은 문학작품 선정할 때 참고할 방향을 제시해 줄 뿐, 이 모든 경향의 작품을 학생들에게 배우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각 시기별 주류를 이루는 창작 경향에 따라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전공자가 아니므로 그렇게 상세하게,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문학의 기본적 맥락과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선에서 창작 경향에 따라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너무 세부적으로 다룰 경우 학생들이 어렵다고 부담을 느낄 것이며 자칫 학생의 흥미 유발에 실패할 수 있다.

셋째, 문학사 맥락(각 시기의 문학 창작적 경향)을 보여 주는 작품이면서 한국 문학의 우수성이나 전형성(전형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게 해야 한다. 어떤 작품은 문학사적 가치가 높지만 현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리 우수하지 못한 것이 있다. 카프의 일부 작품이 그렇다. 문학사적 맥락을 보여 주기 위해 이들 작품도 응당히 다뤄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중국 대학생이 한국 문학에 대한 아무런 사전 체험이나 지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 문학에 대한 좋고 깊은 인상을 가지도록, 나아가 한국 문학을 홍보하고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 문학의 우수성이나 전형성(전형적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을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가독성이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가독성이 좋다는 것은 다양한

23) 지면 관계 상 각 시기의 창작적 경향 분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 수록 작품에 대한 실제 분석을 보여 주는 <표 3>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대체로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 관해서는 정기철(2004: 124-126)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도서 자료 선정 기준’을 참고할 만하다. 첫째,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읽기 능력에 맞는 잘 ‘이해되는 글’, 둘째, ‘공감이 되는 글’, 셋째, ‘감동받는 글’, 넷째, ‘나를 변화시키는 글’, 다섯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는 글’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맞는 작품이라면 학생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어 학습 효과가 좋을 것이다. 물론 실제 선정 작업에서 이들 기준을 모두 맞추기가 힘들겠지만, 대체적인 방향에 따라 선정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sup>24)</sup>

그리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작품의 난이도와 길이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작품의 난이도는 대체로 어휘, 문법, 문장, 문체 등 언어적 요소의 난이도를 말하는데, 외국인인 중국 대학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방언이 많이 삽입된 작품, 개인의 이념적인 사고에 대한 추상적인 묘사가 대폭 들어 있는 작품(최인훈의 『광장』같은 경우)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작품의 길이 문제는 주로 소설을 두고 말하는데 대체로 단편이 적합하다. 물론 장편도 발췌해서 강의하거나 발표시킬 수 있지만, 작품 감상의 완전성을 고려한다면 역시 단편이 나을 것이다.

다섯째, 작품 선정에 있어서 작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시기의 같은 작가의 여러 작품, 같은 작가의 다른 시기의 작품들을 선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작가의 작품을 알려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한국 문학의 풍부하고 다양한 면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여섯째, 위에서 제시한 선정 범위 안에서 한국의 사회 문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정서 등 한국인 특유의 정신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문학은 일정한 사회 문화와 깊고 생생하게 결부되는 영역이므로 문학을 통해 문학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요소를 가장 실감나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인간 정신을 다루는 인문학

24) 정기철(2001:215-230)에서는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읽기 자료의 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비록 청소년을 위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단 지면 관계 상 여기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분야에는 문학만큼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게 개인과 사회에 작용하는 것이 없으니(박인기, 2001: 20) 문학사의 맥락에서 문학작품을 학습함으로써 인간의 정신 문화사를 가장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으로서의 중국 대학생은 외국 문학인 한국 문학을 공부함으로써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기보다 한국의 사회, 문화, 한국인에 대한 이해 등을 도모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에 문학사적 맥락에서 한국 사회 문화나 한국인의 정신적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한국 문학작품을 배우게 하는 것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흥미 유발, 개인 성정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부차적인 기준으로 중국 문학과 비교될 만한 작품, 인문학적 소양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사물의 특징은 비교를 통해 더욱 두드러지므로 비교를 통한 학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문학작품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문학작품과 비교될 만한 한국 문학작품을 선택해서 양국 문학작품 간의 비교를 통해 한국 문학작품의 특징과 문화 특징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 것처럼 중국 대학교 한국어과 한국 문학사 교육 목표 가운데 인문학적 소양 향상이 이차적 목표이다. 이는 현실 요구에 맞춰 모든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이다. 이에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제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 교수법을 고안할 때 학생들이 인문학적 사고를 하게끔 교수가 유도할 수 있고, 작품 선정에 있어 인문학적 소양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들어 있는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기존 문학 교재의 현대 문학작품 목록 조사와 분석

#### 3.1. 분석 대상 설정

한국 문학사 교육용 작품은 한국의 문학사 연구 서적이거나 교재를 참조하여 뽑

을 수도 있지만, 이는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방대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기왕의 교재를 분석하고 참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문학사 교재와 문학작품 선독 교재, 그리고 한국에서 출판된 외국인을 위한 문학사 교재와 선독 교재는 물론, 한국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sup>25)</sup>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sup>26)</sup>의 한국 문학사나 한국 문학 특질을 보여 주기 위해 선정된 문학작품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나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은 한국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나 배우게 되는 작품들이므로 이를 공유하면 일차적으로 한국인들의 작품 경험,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이해할 수 있고, 이차적으로 이들 작품 학습을 통해 형성된 한국인들의 정서, 사고방식이나 문화의식 등의 정신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이들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엄선된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알다시피 한국의 교과서는 단일한 교과서보다 교육부에서 반포한 교육과정에 따라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각자 팀을 이루어 만들어 낸 다양한 교과서들이다. 서로 다른 견해나 시각을 가진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 낸 이들 교과서에 가장 많이 뽑힌 작품들은 가장 한국적이고,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이에 이들 교과서와 대조해 보고 필요한 작품을 선정해 내는 것은 일반 한국 대중이 아는 한국 문학사 작품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학』 교과서와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전체 작품보다 한국 문학사나 한국 문학 특질을 보여 주기 위해 선정된 문학작품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기타 문학작품은 문학의 보편적 속성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 선정된 것이거나 국어의 언어적 규칙이나 특징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문학사나 문학의 특질 교육

25) 2009년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는 총 14종이다.

26) 2009년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총 16종이다.

27)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나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참조 범위로 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한 연구가 많다.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 출판된 문학 교재를 살펴보면 『국어』 교과서나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과 일치하는 것이 많다. 이는 또한 실증적인 측면에서 이런 타당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남연(2013: 779~789) 참조.

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Ⅰ’과 ‘문학Ⅱ’ 영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sup>28)</sup> ‘문학Ⅰ’과 ‘문학Ⅱ’ 영역의 내용 체계는 크게 ‘문학의 성격’, ‘문학 활동’, ‘문학의 위상’, ‘문학과 삶’으로 나누어진다. ‘문학의 성격’에는 ‘문학의 개념’, ‘문학의 역할’, ‘문학의 갈래’로, ‘문학 활동’에는 ‘문학의 수용’, ‘문학의 생산’, ‘문학과 매체’로, ‘문학의 위상’은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한국 문학의 세계화’로, ‘문학과 삶’은 ‘문학과 자아’, ‘문학과 공동체’, ‘문학과 문화’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진다.<sup>29)</sup> 여기서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를 포함 시킨 ‘문학의 위상’ 영역은 한국 문학사나 한국 문학의 특질을 보여 주는 영역이며, 나머지 기타 부분은 모두 문학의 보편적 속성을 다루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교과서 속 ‘문학의 위상’을 다루는 단원<sup>30)</sup>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한국 문학사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며, 기타 영역을 다루는 단원의 작품은 문학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뽑힌 작품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문학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뽑힌 이들 작품도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하고 대표적인 작품들이라 뽑혔겠지만, 역시 ‘문학의 위상’ 부분에서 다루는 작품만이 한국 문학사나 한국 문학의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작품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Ⅰ’과 ‘국어Ⅱ’ 영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국어Ⅰ’과 ‘국어Ⅱ’ 영역의 내용 체계는 크게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다시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문학 영역에는 다시 세부적으로 ‘문학의 갈래의 이해’, ‘작가의 개성 이해와 작품

28) 2009년도 반포한 국어과 교육과정은 2010, 2011, 2012, 2013년을 거쳐 몇 차례의 작은 수정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교과서는 모두 2012년 3월에 초판 발행한 교과서들이므로 이들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따르던 2011년 수정판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29) 교육과학기술부, 『2009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p.51, p.58.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의 원문 자료 참조.

30) 교과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한국 문학의 개념/범위’, ‘한국 문학의 역사(흐름)’,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한국 문학의 세계화(세계 속의 한국 문학)’ 등의 제목으로 단원을 구성한다.

감상 문학과 사회적 소통’, ‘한국 문학의 전승과 흐름’, ‘문학의 효용과 문학 활동’, ‘문학 활동과 비평적 태도’로 나누어진다.<sup>31)</sup> 여기서 문학 영역 가운데 ‘한국 문학의 전승과 흐름’은 한국 문학사를 다루는 부분이며, 문학 영역의 나머지 부분은 문학의 일반적 속성을 다루는 부분이고 기타 영역은 모두 국어의 규칙이나 특징을 다루는 부분이다. 이에 교과서 속 ‘한국 문학의 전승과 흐름’을 다루는 단원에 수록된 문학작품은 한국 문학의 특징, 한국 문학사의 맥락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한국 문학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며, 기타 영역을 다루는 단원의 작품은 문학의 일반적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작품이나 언어의 특징 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문학작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13종 13권 『문학』 교과서 속 ‘문학의 위상’에 해당하는 단원, 16종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속 한국 문학의 전통이나 흐름을 다루는 단원에 본문 제재로 수록된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sup>32)</sup> 학습 활동의 제재로 수록된 작품도 있는데 이들 작품은 효과적인 학습 활동을 위해 선정된 작품이니만큼 문학사상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작품이 아닐 수도 있어 논의의 대상을 제외시킨다.<sup>33)</sup>

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국어과 교육과정』, p.79, p.93.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의 원문 자료 참조.

32) 14종 문학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상·하권 두 권으로 편찬되며 한국 문학사를 다루는 부분은 주로 하권에 들어있다. 그러나 조남현 외(2012)의 경우 『문학』(1)만이 검정에 통과되어 출판되어 있기 때문에 총 13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고현진 외(3종), 권영민 외(2종), 김윤식 외(3종), 박영민 외(2종), 유병환 외(2종), 정재찬 외(3종), 최지현 외(2종)에 의해 각각 1-2종 교재들이 더 많이 편찬되어 출간된 경우가 있다. 이들 교재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교재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우선 본 연구에서는 2011.8.19.자로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교재(대부분 2012.3초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향후 자료가 완비되는 대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다.

33) ① 물론 논의의 완전성을 고려하면 이들 작품도 하나하나씩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자료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 여건상의 어려움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단 논의로 하고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다. ② 각 『문학』 교과서의 문학사 부분의 도입부에서 문학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언급된 작품들이 있다. 이들 작품은 지면 관계 상 비록 교과서에 구체적 작품 형식으로 실리지는 않았지만 아주 짙막한 문학사 소개 부분에 언급된 것으로 볼 때 문학사상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들 작품을 추천 작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한편 중국 내 문학사 교재를 살펴보면, 모국어(한국어)로 하는 조선족을 상대로 편찬된 교재로 김춘선(2002), 김춘선(2009), 김명숙(2010)이 있는가 하면, 외국 문학을 소개하는 일환으로서의 문학사 연구 서적으로 김병민 외(2004), 김영금(2009a)가 있다. 또한 북한 문학을 다루는 문학사 교재로 하진화(2008)가 있는가 하면, 한국 학자가 집필한 문학사를 중국어로 번역한 교재로 김윤식 외(2000), 조동일 외(2003)가 있다. 그리고 대학교 한국어 학과의 학생을 상대로 하는 한국 문학만을 다루는 문학사 교재들도 많이 출간되었는데, 김영금(2009b), 김영금(2010), 김춘선 외(2012), 윤윤진 외(2006), 임국웅(2013), 한위성 외(2006)가 대표적인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대학교 한국어 학과의 학생을 위한 한국 현대 문학사 교육용 작품 선정을 위한 연구이므로 위의 문학사 교재 가운데 중국 대학교 한국어 학과 학생과 한국 문학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작품 選讀 부분이 들어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교재로 김춘선 외(2012), 임국웅(2013), 한위성 외(2006)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판된, 외국인(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작품 選讀 부분이 들어 있는 문학사 교재 배규범(2011), 이선이·김현양·채호석(2012), 이선이·구자황(2012)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세 교재 모두 문학사적 기술 내용이나 작가 소개 등의 내용을 다룬 뒤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 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중국 대학교 학생을 위한 한국 현대 문학작품 選讀 교재로 총 11종(12권)의 選讀 교재가 나와 있다. 이 가운데 김학철(2011)과 윤해연(2006)은 일반 대중을 위해 편찬된 한국 명작을 소개한 저서이며, 서영빈(2004)과 리민덕(2008)은 대학교 고학년 학생을 위한 고급한국어 강독 교재이다. 이 세 교재 모두 문학사 교육에 맞추어 편찬된 교재가 아니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 선독 교재는 金京善(1998), 金英수(2008), 신창순(2007), 尹允鎮 외(2006), 金龙华(2011), 韩梅 외(2009), 韩梅 외(2010)가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분석 대상이 되는 문학사 교재까지 합치면 본 연구에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 총 13종(14권)을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sup>34)</sup>

### 3.2 분석의 실제

이 절에서는 기존 문학 교재를 분석하여 한국 문학사 교육용으로 참조할 수 있는 작품 목록을 추출해 내어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와 『국어』 교과서, 중국 국내 문학사 및 문학작품 선독 교재에 수록된 현대 문학작품을 현대 문학사의 시대 구분별 빈도수대로 정리하고, 이 세 개의 표를 대조시켜 한중 양쪽 교재에 모두 수록된 작품을 정리해 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문학사 교육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일차적인 작품 목록을 추출해 낼 것인데, 이들 작품이 과연 적절한지, 어떤 작품이 빠져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한중 각 교재의 총체적인 특징을 정리해 본다. 13종 13권 『문학』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 총 117종(소설 55종, 시 62종)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두 번 이상 수록된 작품은 총 35종(소설 19종, 시 16종)이다. <혈의 누>, <결부철도노래>, <해에게서 소년에게>, <님의 침묵>, <광장>, <원고지>, <토지>는 세 번이 수록되어 있고, <무정>, <농무>, <만세 전>은 각각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 빈도수가 높을수록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라는 점을 말해 주니 뒤에서 이루어질 작품 선정 작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식민지 시대 중반기의 작품이 1편밖에 수록되지 않고 개화기, 해방 공간의 수록 작품도 많지 않아 이 세 시기의 작품 양상은 상대적으로 덜 다양하다. 반대로 식민지 시대 후반기, 2000년대 이후의 작품은 보다 많이 수록되어 있어 이 두 시기의 문학 양상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편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16종을 살펴보니, 교육과정에 요구되는 ‘한국 문학의 전승과 흐름’이라는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교과서(1종)가 있는가 하면, 반영하되 한국 고전 작품만을 들어 한국 문학 전통을 보여 주는 교과서(4종)가 있고,

34)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고, 논의의 편의를 기하기 위해 한국 『문학』 교과서 중 ‘한국 문학의 위상’을 다루는 단원을 ‘한국 교재’라고 칭하고, 중국과 한국에서 출판된 문학사나 선독 교재를 모두 ‘중국 교재’라 칭한다. 그리고 4장에서 언급될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목록은 ‘한국 문학의 위상’을 포함한 전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의미한다.

또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모두 포함시켜 다루되 고전에 더 비중을 두는 교과서(11종)가 있다. 이들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총 10종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진달래꽃>은 두 번, <태평천하>는 세 번 수록된 작품이고 나머지 작품은 한 번씩 수록된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은 모두 고전과의 연관, 고전의 전통을 이어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선정된 작품이므로, 비록 작품 수가 많지 않지만 한국 문학의 맥락,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 주는 데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중국 교재 13종을 한국의 『국어』와 『문학』을 대비해 보니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297종(소설 149종, 시148종)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두 번 이상 수록된 작품은 총 90종(소설 45종, 시 45종)이다. 이 가운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열 번, <님의 침묵>과 <진달래꽃>은 여덟 번, <탈출가>, <무정>, <모란이 피기까지는>, <국화 옆에서>, <껍데기는 가라>,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는 일곱 번, <운수 좋은 날>, <메밀꽃 필 무렵>, <수난이대>, <무진기행>, <삼포 가는 길>, <농무>는 여섯 번, <불놀이>, <감자>, <낙동강>, <날개>, <동백꽃>, <백치 아다다>, <무녀도>, <역마>, <서시>, <나그네>, <소나기>, <꺼삐딴 리>, <병신과 머저리>, <꽃>은 다섯 번의 아주 높은 빈도수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이들 작품이 중국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실제 교수에서 중점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개화기, 식민지 중반기, 해방 공간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덜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 교재와 같은 현상이고, 2000년대 이후의 작품으로 시 4편만 수록되어 있어 2000년대 이후 작품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한국 교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한중 문학 교재를 살펴보니, 작품 선정에 있어서 시대별 비중에 비슷한 특징이 보이는데 하면 중국 교재가 상대적으로 전문적이고 전통적이며, 이에 비해 한국 교재는 최근 작품을 더 중요시하는 특징을 드러낸다. 비중 상의 특징은 실제 교수·학습에서 어느 시기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한편, 서로 다른 수록의 특징은 보완적으로 작품 선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 준다.

다음은 한중 양쪽 문학 교재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창작적 경향에 따라 분석한 작품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4> 한국 문학사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할 현대 문학작품 목록

시기	장르	수록 작품		전체 경향 <sup>35)</sup>
		창작 경향	작품	
개화기	소설	우화	금수회의록(안국선)	영웅전기/우화/풍자/신소설
		신소설	혈의 누(이인직)	
	시	창가	경부철도가(최남선)	시조(개화시조/연작시조)/가사(동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최남선)	학가사/의병가사/창가/신체시
식민지 시대 전반기	소설	근대소설의 출현	무정(이광수)	근대소설의 출현/근대소설의 전개
		근대소설의 확립	만세전(염상섭)	(단편소설의 정립)/근대소설의 확립
식민지 시대 전반기	시	자유시의 확립 및 심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님의 침묵(한용운)/진달래꽃(김소월)/산유화(김소월)/초혼(김소월)/알 수 없어요(한용운)/나의 침실로(이상화)	자유시 형성 기반 마련/자유시 형성과 전개(서사시)/자유시 확립 및 심화(민족적 정서)
		소설	사실주의 소설	고향(이기영)
식민지 시대 중반기	시			경향시
		소설	모더니즘 소설	날개(이상)/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풍자소설	레드메이드인생(채만식)			
해학소설	태평천하(채만식)			
여성 소설	봄봄(김유정)			
식민지 시대 후반기	시	모더니즘 시	거울(이상)/오감도 제1호(이상)	모더니즘시/서정시/저항과 자아성찰 시/인간본질 탐구 시/자연 친화적인 시
		시조	난초(이병기)	
		정향시	절정(이육사)	
		자연 친화적 시	남으로 창을 내겠소(김상용)	
		소설	순수문학적 소설	
해방기	시	이념시	꽃땀(신석정)	이념시/ 순수시
		순수시	낙화(조지훈)	

1950 년대	소설	기성세대의 소설	너와 나만의 시간(황순원)	기성세대의 소설/전후세대의 비판 과 저항 소설/인간 탐구 소설
		전후세대의 비판 과 저항 소설	비오는 날(손창섭)/ 오발탄(이범선)/유예(오상원)	
	시	모더니즘 시	꽃(김춘수)	전쟁 소재의 전쟁시/전통적 순수 서 정시/모더니즘 시/현실파 시
		전쟁 소재 시	초토의 시8(구상)	
		현실파 시	눈(김수영)	
서정시	행복(유치환)			
1960 년대	소설	신인들 소설	광장(최인훈)/모래톱 이야기 (김정환)/역사(김승옥)/원고 지(이근삼)	전후세대의 소설/신인들의 소설
	시	참여시	풀(김수영)	참여시/순수시/모더니즘 시
1970 년대	소설	사회문제 형상화 소설	삼포 가는 길(황석영)	사회문제를 형성화한 소설/새로운 기법을 추구하는 소설/사회 소외 계 층의 애환을 다루는 소설/분단 소설/ 대중소설/여성소설/연작소설/대하 소설
		소외 계층 애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새로운 기법 소설	당신들의 천국(이청준)	
	분단소설	장마(윤홍길)/ 한씨 연대기 (황석영)		
시	민중시	농무(신경림)/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화살(고은)	민중시(참여시)/전통적 서정시/모 더니즘 시(기법 혁신 시)	
1980 년대	소설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갈등을 반영 한 소설(광주 민주화 항쟁과 노동자 계급의 애환을 소재)/분단 소설/대하 소설/도회인의 현대적 생활과 심리 상태를 반영한 소설
	시	민중적 현실인식의 시	노동의 새벽(박노해)	민중적 현실인식의 시/실험시(전통 해체의 실험시와 도시적 감수성의 시)/전통적 감수성의 시
1990 년대 이후	소설	여성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	후일담 소설/소설가 소설/내면적 탐 구의 소설/신세대 소설/여성 소설/생 태 문제 소설/노동소설
		내면적 탐구	은어낚시통신(윤대녕)/ 외판방(신경숙)	
	시			도시적 일상성과 감수성을 형상화한 시/전통 서정시를 심화, 변용시키는 시/여성성의 시

35) 각 시기별 현대 문학의 창작적 경향을 정리하는 데 있어 권영민(2002), 김춘선 외(2012), 배규범(2011), 김윤식 외(2000) 등의 문학사를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우선, 개화기의 작품 목록을 보면, 우화, 신소설, 창가, 신체시 각각 1편씩이 선정되어 있다. 소설 2편, 시 2편인 수량 요구에 부합하고, 선정된 작품은 모두 문학사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중요한 작품들이다. 전체 창작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영웅 전기, 풍자, 시조, 가사(동학 가사, 의병가사, 개화가사)가 빠져 있는데, 이 가운데 풍자와 개화가사가 더 읽기의 형식으로 언급될 만하다. 한중 양쪽 교재에도 모두 개화 가사, 중국 교재에 풍자 작품이 선정되어 있는 것도 이의 필요성을 증명해 준다.

식민지 시대 전반기의 작품 목록을 보면, 근대소설의 출현 및 확립을 보여주는 작품 각각 1편씩, 자유시의 확립 및 심화를 보여 주는 작품 7편이 선정되어 있다. 이들 작품은 모두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인데, 단 시 작품은 요구된 수량보다 많아 선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정된 시 작품은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의 중요한 작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자유시의 확립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전체적 창작 경향에 비추어 보면 소설에 있어서 근대소설의 전개(단편소설의 확립)를 보여 주는 작품, 자유시의 형성 기반 마련이나 전개를 보여 주는 작품이 빠져 있다. 소설의 경우, 단편소설은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아주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응당히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요구 수량인 2편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소설 중 어느 것을 위주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정>과 <만세전>은 모두 장편소설이라 수업 시간에 다루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 점에서 단편소설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럼 <무정>과 <만세전> 중 어느 것을 선정해야 할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문학』교과서에 <만세전>은 여섯 번, <무정>은 네 번이 수록되어 있는데 <만세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작품의 우수성을 볼 때 근대 소설의 성숙을 대표하는 <만세전>은 최초의 근대 소설인 <무정>보다 문학적 완성도가 더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세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의 경우, 자유시의 확립 및 심화를 보여 주는 작품들은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시 작품으로 이들 위주로 선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타 두 가지 경향의 작품은 더 읽기의 형식으로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진달래꽃>과 <님의

침묵> 같은 경우, 문학사에서 특히 중요한 작품이므로 ‘한국어 과목’에 수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감안하여 여기서 선정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작가의 여러 작품을 함께 수록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감안할 때 이상화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김소월 <산유화>와 <초혼>,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중 어느 것 택할 것인가? 문학을 통해 한국의 사회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중국 대학생의 요구를 고려하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초혼>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민지 시대 중반기의 목록을 보면, 시 작품이 빠져 있고, 소설 작품 1편이 선정되어 있다. 대표적 경향시 2편이 보완되어야 한다. 소설의 경우, 선정된 소설 <고향>은 사실주의 소설로 경향소설의 가장 우수한 대표작이므로 선정될 만한데, 소설 2편을 선정해야 하므로 1편을 더 골라내야 한다. 전체적 창작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념소설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나, 문학적 완성도나 우수성을 고려할 때 이념소설보다 역시 사실주의 소설을 택하는 것이 좋다.

식민지 시대 후반기의 목록을 보면, 소설의 경우 모더니즘 소설 2편, 풍자소설 2편, 해학소설 1편, 여성 소설 1편, 총 6편이 선정되어 있고, 시의 경우 모더니즘 시 2편, 시조 1편, 자연 친화적 시 1편, 총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선정된 작품은 모두 대표적 작품이라 선정될 만하지만 소설 3편, 시 3편이라는 요구 수량을 초과해서 선별해야 한다. 전체적 창작 경향에 비추어 보면, 소설의 경우 리얼리즘 소설, 농민소설, 역사소설이 다루어져 있지 않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 창작적 경향이 모더니즘, 풍자, 해학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리얼리즘 소설도 이 시기의 대표적 경향인데 대표작인 김남천의 <대하>는 장편이라 다루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보류하기로 한다.

또한 6편 중에서 3편을 골라내야 한다. 창작 경향별 보면 모더니즘 소설, 풍자 소설, 해학소설이 여성 소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대표적이다. 모더니즘 소설의 경우 선정된 두 편의 작품은 모두 모더니즘의 정수를 보여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지만 <날개>의 경우 너무 난해해서 중국 대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어렵지 않지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

는 데 제한적이다. 이에 이 두 소설보다 기타 소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풍자소설의 경우 채만식의 대표작 2편이 선정되어 있는데, 길이 상 단편소설인 <레드메이드인생>이 장편소설 <태평천하>보다 나은 듯하나 <태평천하>는 한국 교재에 높은 빈도수로 선정된 작품인데다 채만식의 가장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해학소설의 경우 김유정의 대표작 <봄봄>이 선정되어 있는데 사투리가 많아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다소 문제가 되겠지만 교수의 해석으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 시기 시의 창작적 경향 중에서 모더니즘 시, 서정시, 저항과 자아성찰의 시가 상대적으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서정시가 빠져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간본질 탐구 시와 자연 친화적인 시도 중요하지만 이 두 경향의 대표작가 서정주와 조지훈 등의 작품은 뒤의 시기에도 다룰 수 있으니 여기서는 일단 빼기로 한다. 모더니즘 시의 경우, 이상의 <거울>과 <오감도>가 모두 대표적인 작품인데, 수록 빈도수로 볼 때 <거울>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되어서 <거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서정시의 경우 기존 목록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해방기의 목록을 보면, 소설 1편, 시 2편이 선정되어 있다. 소설의 경우 양적으로 부족하다. 전체 창작적 경향에 비추어 보면 다섯 가지 경향 가운데 순수문학적 소설만을 다루고 있다. 순수문학적 소설은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경향이고, 소설 <역마>도 순수문학적 소설의 대표작이라 선정될 만하다. 기타 경향의 소설들의 수량도 적지는 않지만 대표성으로 볼 때 순수문학적 경향보다 못하다. 이 가운데 어떤 경향의 소설 1편을 선정할지 기존 목록을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다. 시의 경우 이념시와 순수 지향의 시 각각 1편이 선정되어 있는데 양적으로, 작품의 대표성으로 볼 때 모두 문제가 없다.

1950년대의 목록을 보면, 소설 4편, 시 4편이 선정되어 있다. 각각 2편이라는 수량 요구를 초과했으니 선별해야 한다. 소설의 경우, 세 가지 창작 경향 가운데 전후세대의 비판과 저항의 소설 3편, 기성세대의 작품 1편이 선정되어 있다. 전후세대의 작품 가운데 <비 오는 날>과 <오발탄>이 모두 한국 교재에 한 번, 중국

교재에 세 번 수록되었고, <유예>는 한중 교재에 모두 한 번씩만 수록되어 있다. 이에 <비 오는 날>과 <오발탄>이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둘 중 어느 것을 택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모두 선정하여, 현장의 교수와 학생에게 택하게 하고자 한다. 인간 탐구 소설 중에서는 하근찬의<수난시대>가 대표적인 작품인데, 수량 제한으로 이 작품을 더 읽기의 형식으로 보여 주도록 해야 한다.

시의 경우, 네 가지 경향의 시 각각 1편씩이 선정되어 있다. 모더니즘의 대표작 김춘수의 <꽃>은 응당 선정되어야 하지만 이 시는 ‘한국어’ 과목에서 다룰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시기는 주로 전쟁 직후의 현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주된 문제라 전쟁 소재 시, 현실과 시를 선정하여 배우게 하면 이 시기의 사회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의 목록을 보면, 소설 4편, 시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부족하다. 소설의 경우 두 가지 창작 경향 가운데 신인들의 소설 3편, 전후 세대의 소설 1편이 선정되어 있다. 신인들의 소설 가운데 <광장>은 비록 한국 현대 문학사상 이정표 같은 중요한 작품이지만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 외국인 학생들이 배우기가 힘들다는 판단에서 본문 교재로 제외시키고 ‘더 읽기’의 작품으로 제시해 둔다. 이근삼의 <원고지>는 한국 교재에 세 번, 중국 교재에 한 번이, 김승옥의 <역사>는 한국 교재에 두 번, 중국 교재에 한 번이, 그리고 김정환의 <모래톱 이야기>는 한국교재와 중국 교재에 각각 한 번이 수록되어 있다. 빈도수로 보아 이근삼의 <원고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의 경우, 참여시의 대표작 <풀>(김수영)만 선정되어 있다. 순수시, 모더니즘 시가 빠져 있다. 60년대는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이 양분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더니즘 시보다 순수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70년대의 목록을 보면, 소설 5편, 시 3편이 선정되어 있다. 양적으로 초과해서 선별해야 한다. 소설의 경우, 8가지 창작 경향 가운데 4가지 경향의 작품이 1편 내지 2편씩 선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삼포 가는 길>과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가 황석영은 최인호와 함께 70년대의 두 가지 창작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sup>36)</sup>라 다룰 만하다. 또한 <삼포 가는 길>과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70년대의 대표적 사회 문제-사회문제, 산업화 과정에서의 소외 계층 문제를 다루는 대표작이라, 문학을 통해 한국 사회를 꿰뚫어 보자는 점을 고려하여 응당 다루어져야 한다.

시의 경우, 민중시 3편이 선정되어 있다. 전통적 서정시와 모더니즘 시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민중시 가운데 <농무>가 한중 교재에서 모두 선정 빈도수가 높아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1980년대의 목록을 보면, 소설이 선정되어 있지 않고, 시는 민중적 현실인식 시의 대표작 <노동의 새벽> 1편만이 선정되어 있다. 소설과 시 모두 보완되어야 한다. 소설의 경우, 1980년대의 창작적 경향 가운데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갈등을 반영한 소설과 도회인의 현대적 생활과 심리 상태를 반영한 소설이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소설일 것이다. 이에 문학을 통해 한국 사회를 알고자 하는 목표를 감안하여 이 두 경향의 소설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중적 현실인식의 시, 실험시(전통해체의 실험시와 도시적 감수성의 시)가 이 시기의 시대상 및 사람들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목록을 보면, 공지영의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와 윤대녕의 <은어남시통신>, 신경숙의 <외딴방> 3편이 선정되어 있고 시는 빠져 있어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 소설의 경우, 1990년대 이후의 창작적 경향 가운데 내면적 탐구의 소설과 신세대 소설 및 여성 소설은 이 시기 새로이 부각된 경향으로 사회 문화 모습이나 이 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90년 이후 대두된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서 한국 현실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경숙의 <외딴방>은 한국 교재에 세 번, 중국 교재에 한 번이 수록되어 있고, <은어남시통신>은 한중 양쪽 교재에 각각 한 번이 수록되어 있다. 빈도수로 보아 신경숙의 <외딴방>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시의 경우, 도시적 일상성과 감수성을

---

36) 권영민(2002), p.266 참조

형상화한 시와 여성성의 시가 이 시대의 사회상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경향이라 본다. 이에 이들 경향의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한국 현대 문학사 시대 구분별 작품 목록 구성

이 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 문학사의 시대별로 선정된 작품 목록을 정리해 낼 것이다. 우선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현대 문학사 교육용 일차적 문학작품 목록을 정리해 낼 것이다. 그리고 보완되어야 할 작품은 앞서 분석한 기존 한중 교재에 공통적으로 수록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참조하여 선정해 내도록 하고, 선정이 어려울 경우 한국 학생과 공통적인 작품 체험을 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문학』교과서의 전체 수록 작품 목록과 대조해 선별해 내도록 할 것이다.

<표 5> 한국 문학사 교육용 현대 문학작품 목록(1차적)

시기	장르	수록 작품	보완해야 할 작품	더 읽기
개화기	소설	금수회의록(안국선) / 혈의 누(이인직)	풍자	
	시	경부철도가(최남선) / 해에게서 소년에게(최남선)	개화 가사	
식민지 시대전 반기	소설	만세전(염상섭)	단편소설 1편	무정(이광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초혼(김소월)		산유화(김소월)/알 수 없어요(한용운)/나의 침실로(이상화)
식민지 시대중 반기	소설	고향(이기영)	사실주의 소설 1편	
	시		경향시 2편	
식민지 시대후 반기	소설	태평천하(채만식)/ 봄봄(김유정)	모더니즘 소설 1편	날개(이상)/소설가 구 보 씨의 일일(박태원)/ 레드메이드인생(채만 식)/인간 문제(강경애)
	시	거울(이상)/절정(이육사)	서정시 1편	오감도 제1호(이상)/난 초(이병기)/남으로 창 을 내겠소(김상용)

해방기	소설	역마(김동리)	기타 경향의 소설 1편	
	시	꽃뎀불(신석정) 낙화(조지훈)		
1950 년대	소설	너와 나만의 시간(황순원)/ 비오는 날(손창섭)/ 오발탄(이범선)	인간 탐구 소설 (수난이대(하근찬)-더 읽 기)	유예(오상원), 수난이 대(하근찬)
	시	초토의 시8(구상) 눈(김수영)		행복(유치환)
1960 년대	소설	원고지(이근삼)	전후 세대의 소설	광장(최인훈)/모래톱 이야기(김정한)/역사 (김승옥)
	시	풀(김수영)	순수시 1편	
1970 년대	소설	삼포 가는 길(황석영)/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당신들의 천국(이청 준)/장마(윤홍길)/한씨 연대기(황석영)
	시	농무(신경림)	전통적 서정시 1편 모더니즘 시 1편(더 읽기)	타는 목마름으로(김지 하)/화살(고은)
1980 년대	소설		사회의 부조리와 갈등 소 설/도회인의 생활 심리 상 태 소설	
	시	노동의 새벽(박노해)	실험시 1편/ 서정시 1편 (더 읽기)	
1990 년대 이후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외딴방(신경숙)		은어남시통신(윤대녕)
	시		도시적 일상성과 감수성 을 형상화한 시 1편 여성성의 시 1편	

위 표에서의 ‘수록 작품’은 3장의 논의를 거쳐 이미 선정이 확정된 작품들이다. ‘보완해야 할 작품’은 관련된 목록을 참조하여 더 선정해야 할 작품들인데, 여기에는 본문으로 활용될 작품도 있고 ‘더 읽기’의 작품으로 활용될 것도 있다. ‘더 읽기 작품’은 앞의 선정에서 탈락된 작품들이다.

작품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보완해야 할 작품’은 역시 앞에서 분석했던 한중 교재를 주로 참조하여 선정할 것이다. 우선 개화기에 보완되어야 할 작품은 풍자 작품과 개화가사이다. 한중 교재를 살펴보니 개화 가사로 한중 각각 <애국가>(이용

우)와 <애국하는 노래>(이필균), 풍자 작품으로 중국 교재에 <자유종>(이해조)이 선정되어 있다. <애국하는 노래>는 상대적으로 유명하여 우선적으로 선정될 만하다.

식민지 시대 전반기에 보완되어야 할 작품은 단편소설이다. 한국 교재에 <고향>(현진건)만 두 번 수록되어 있고 중국 교재에는 다섯 번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배따라기>(김동인), <운수 좋은 날>(현진건)을 비롯한 8종 단편소설이 선정되어 있다.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목록을 살펴보면 <운수 좋은 날>이 두 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 <배따라기> 등 기타 단편소설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운수 좋은 날>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작품은 식민지 시기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인력거꾼의 삶을 묘사했는데 중국의 비슷한 소재인 <낙타상자>와의 비교도 되니 흥미 유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sup>37)</sup>

식민지 시대 중반기에 보완되어야 할 작품은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 1편과 경향시 2편이다. 소설의 경우, 한국 교재를 살펴보면 <고향>(이기영)만 수록되어 있고 중국 교재에는 각각 일곱 번, 다섯 번의 높은 빈도수로 탈출기(최서해)와 낙동강(조명희)이 선정되어 있다.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목록을 살펴보니 기타 경향 소설이나 경향시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이 시기의 문학은 상대적으로 그 문학적 성과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국 현대 문학사의 전모를 그려 주기 위해 일단 선정해 내고, 실제 교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취사(取舍)할 수 있다. 이에 중국 교재 및 문학사의 평가를 따르면 <탈출기>를 수업 시간에 다룰 작품으로 선정할 수 있고, <낙동강>은 더 읽기의 작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의 경우, 한중 교재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없어서 문학사에서

37) ‘더 읽기’의 작품으로 자유시 기반 마련을 보여 주는 작품과 자유시 형성 및 전개를 보여 주는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한중 교재를 대조해 보니 공통적으로 선정된 작품이 없다. 기반 마련을 보여 주는 시로 중국 교재에는 김억의 <봄은 간다>는 두 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 형성 및 전개를 보여 주는 시로서 주용한의 <불놀이>가 네 번 수록되어 빈도수가 가장 높다.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목록을 살펴보니 김억의 <연분홍>이 한 번 수록되어 있고, 주요한의 <불놀이>가 두 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불놀이>를 수록하는 것은 문제없고, 한국 학생 같은 체험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연분홍>을 선정하기로 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 김기진의 <한 개의 불빛>을 선정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후반기에 보완되어야 할 작품은 모더니즘 소설 1편, 서정시 1편이다. 소설의 경우, 모더니즘 대표적 소설로 가독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작품으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김동리의 <무녀도>가 있다. 중국 교재에는 <메밀꽃 필 무렵>은 여섯 번, <무녀도>는 네 번 수록되어 있다.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목록을 살펴보니 <메밀꽃 필 무렵>은 두 번 수록되어 있고 <무녀도>는 한 번이 수록되어 있어 중국 교재와 같이 <메밀꽃 필 무렵>의 선정 빈도수가 높다. 이에 <메밀꽃 필 무렵>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시의 경우, 한중 교재를 살펴보니 양쪽 교재에 똑같이 수록된 작품이 없다. 한국 교재에 <모닥불>(백석)이 한 번 수록되어 있고, 중국 교재에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이 여섯 번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어 있다.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목록을 살펴보니, <모닥불>은 본문 제재로 세 번, 학습 활동 제재로 한 번이 수록되어 있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본문 제재로 세 번, 학습 활동의 제재로 세 번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해방기에 보완되어야 할 작품은 순수문학적 소설 외의 기타 경향 소설 중의 1편이다. 한중 교재를 살펴보니 역시 양쪽 교재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기타 경향의 소설이 없다. 한국 교재에 <미스터 방>(채만식)만이 한 번 수록되어 있고, 중국 교재에는 두 파산(염상섭)이 각각 두 번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목록을 살펴보니, <두 파산>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미스터 방>은 세 번 수록되어 있으니 <미스터 방>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950년 소설의 경우 하근찬의 <수난이대>가 전쟁 이후의 현실을 소재로 하는 인간 탐구 소설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 소설을 ‘더 읽기’의 소설로 선정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보완해야 할 작품은 전후세대 소설 1편, 순수시 1편이다. 한중 교재를 살펴보니 두 교재에 모두 전후 세대 소설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이 시기의 소설로 신세대 소설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전후세대의 소설

보다 신세대의 소설 1편을 더 많이 수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의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세대의 소설인 김승옥의 <역사>와 김정환의 <모래톱 이야기>는 한중 교재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역사>는 한국 교재에 두 번, 중국 교재에 한 번이 수록되어 있고, <모래톱 이야기>는 한중 교재에 각각 한 번이 수록되어 있다. 빈도수로 보아 김승옥의 <역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의 경우, 순수시 1편이 선정되어야 한다. 한중 교재를 살펴보니 똑같이 수록된 서정시가 없다. 한국 교재에 <추억에서>(박재삼)가 두 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 중국 교재에 <동천>(서정주)이 한 번 수록되어 있다.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목록을 살펴보니 <추억에서>가 다섯 번 수록되어 있고, <동천>은 두 번만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추억에서>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970년대에 보완해야 할 작품은 서정시와 모더니즘 시 각각 1편이다. 한중 교재를 살펴보니 한국 교재에 민주시만 수록되어 있고 서정시와 모더니즘 시는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민중시가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창작 경향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중국 교재에 서정시로서 <신부>(서정주)가 두 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 모더니즘 시로서 <서울 1972 가을>(황동규)를 비롯한 다른 작가의 4편의 시가 각각 한 번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목록을 살펴보니 서정시로서 대표작가인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가 네 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 <신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한국 학생과의 공통적인 체험을 향유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슬픔이 기쁨에게>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더니즘 시의 경우,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목록을 살펴보니 위의 모더니즘 작품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시기의 유명한 모더니즘 시는 <태평가>(황동규)로 평가하고 있으니 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1980년대에 보완해야 할 소설 작품은 사회의 부조리와 갈등을 반영한 소설 1편, 도회인의 현대 생활과 심리 상태를 반영한 소설 1편이다. 한중 문학 교재에 공통적으로 선정된 작품은 없다. 중국 교재와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목록을 대조하여 살펴봤는데, 분단 현실을 소재로 하는 <아버지의 땅>(임철우)만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고, 기타 경향의 소설을 공통적으로 선정한 것은 없다.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목록을 살펴보니, 사회의 부조리와 갈등을 반영한 소설로 <어린 왕자>(조세희)가 여섯 번의 높은 빈도수로 많이 선정되었다. 또한 도회인의 현대 생활과 심리 상태를 반영한 소설이 특별히 많이 선정된 작품이 없어 중국 교재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먼 그대>(서영은)를 택하고자 한다.

시의 경우, 실험시 1편, 서정시 1편을 보완해야 한다. 한중 문학 교재에 역시 공통적으로 수록한 작품이 없다. 중국 교재와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목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니, 실험시의 대표시작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황지우)가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서정시의 경우 공통적으로 수록한 것이 없고, 『문학』 교과서에 서정시의 대표작가 최두식의 <성에꽃>이 다섯 번의 높은 빈도수로 수록되어 있다. 1980년대 군사독재로 인해 피폐된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과 함께 그 닫힌 상황에 대한 냉소적 태도와 무력감을 노래하고 있는 <새들도 세상을 뜨는 구나>는 한국 80년대 사회의 실상 및 민중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에꽃>은 일반 서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애정과 함께 어두운 사회 현실을 노래하여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80년대 시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당시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보완해야 할 작품은 도시적 일상성과 감수성을 형상화한 시 1편, 여성성의 시 1편이다. 한중 교재에는 역시 공통적으로 수록된 작품이 없어 한국 『문학』 교과서를 살펴봤다. 여성성의 시로서 대표작가인 나희덕의 <뿌리에 게>가 두 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 또한 문정희의 8편(90년대 5편, 2000년대 3편) 작품이 한 번씩 수록되어 수록 작품이 가장 많은 작가이다. 그리고 나희덕도 다른 작품 <엘리베이트>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두 작가가 여성성의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희덕 <뿌리에 게>를 강의 작품으로 선정하고, 『문학』 교과서의 문학사 부분에서 다루는 문정희의 대표작 <퇴근 시간>을 더 읽기의 작품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도시적 일상성과 감수성을 형상화한 시로 김기택의 작품이 『문학』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소>, <벽>, <멸치>, <어린시절 기억나지 않는

다>, <다리 저는 사람>,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 이들 작품이다. 김기택의 시의 특징은 동물, 장애인 같은 소외 계층을 빌어 현대 문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보편적 문제, 보편적 주제인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는 <바퀴벌레는 진화 중>은 높은 평가를 받는 대표작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한편, 한국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작품을 살펴보니 2000년대의 소설로 박범신의 소설 <나마스테>가 세 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 시로서 하종오의 <원어>(두 번 수록)를 비롯한 여러 편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2000년대의 창작 특징을 대표할 만한 이들 작품도 더 읽기의 작품으로 추가해 둘 수 있다.

이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사 교육용 현대 문학작품 목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본다.

<표 6> 한국 문학사 교육용 현대 문학작품 목록(최종안)

시기	장르	교수 강의할 작품	학생 발표 작품	더 읽기
개화기	소설	혈의 누(이인직)	금수회의록(안국선)	<애국하는 노래>(이필균)/ <자유종>(이해조)
	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	경부철도가(최남선)	
식민지 시대 전반기	소설	만세전(염상섭)	운수 좋은 날(현진건)	무정(이광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가(이상화)	초혼(김소월)	산유화(김소월)/알 수 없어요(한 용운)/나의 침실로(이상화)/ 연분홍(김억)/불놀이(주요한)
식민지 시대 중반기	소설	고향(이기영)	탈출기(최서해)	
	시	우리 오빠와 화로(임화)	한 개의 불빛(김기진)	
식민지 시대 후반기	소설	태평천하(채만식)	봄봄(김유정)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날개(이상)/소설가 구보 씨의 일 일(박태원)/레드메이드인생(채 만식)/인간 문제(강경애)/ 무녀도(김동리)
	시	거울(이상) 절정(이육사)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오감도 제1호(이상)/난초(이병 기)/남으로 창을 내겠소(김상용)

해방기	소설	역마(김동리)	미스터 방(채만식)	두 파산(염사섭)
	시	꽃땀볼(신석정)	낙화(조지훈)	
1950년대	소설	너와 나만의 시간 (황순원)	비오는 날(손창섭) 오발탄(이범선)	유예(오상원), 수난시대(하근찬)
	시	눈(김수영)	초토의 시8(구상)	행복(유치환)
1960년대	소설	원고지(이근삼)	역사(김승옥)	광장(최인훈)/ 모래톱 이야기(김정한)
	시	풀(김수영)	추억에서(박재삼)	동천(서정주)
1970년대	소설	삼포 가는 길(황석영)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당신들의 천국(이청준) 장마(윤홍길)
	시	농무(신경림)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타는 목마름으로(김지하)/ 화살(고은)/<태평가>(황동규)/ 신부(서정주)
1980년대	소설	어린 왕자(조세희)	먼 그대(서영은)	<아버지의 땅>(임철우)/ <토지>(박경리)
	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노동의 새벽(박노해)	성애꽃(최두석)
1990년대 이후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공지영)	외판방(신경숙)	은어남시통신(윤대녕)/ 나마스태(박범신)
	시	바퀴벌레는 진화 중 (김기택)	뿌리에게(나희덕)	퇴근 시간(문정희)/ 월어(하종오)

위의 표에서는 교수가 강의할 작품, 학생 발표 작품, ‘더 읽기’ 작품으로 나눠 한국 현대 문학사 교육용 문학작품 목록을 제시하였다. 교수가 강의할 작품, 학생 발표 작품으로 분류한 주된 기준은 작품의 중요도나 작품의 난이도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 예컨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작품, 예컨대 근대문학의 시작 선에 있는 <혈의 누>와 <해에게서 소년에게> 등의 작품은 교수에 의해 교수되도록 배정해 냈다. 그리고 ‘더 읽기’ 작품은 위의 논의에서 아쉽게 본문이나 발표 제재로 탈락된 작품들이다. 물론 이들 목록은 다시 검토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지면 관계상 이는 다음 과제로 삼고 여기에서는 일단 활용 가능한 작품을 나열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실제 수업 시수의 제한으로 인해 이들 작품 중 몇 편은 실제 교수에서

모두 다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이 부족할 때 문학사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기의 작품은 수업에서 다루지 않고 ‘더 읽기’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 교수-학습의 상황에 맞게끔 조절해야 한다.

## 5. 결론

중국 대학생을 위한 한국 문학사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중국 내에서 중국 대학생에게 맞는 문학사 교재나 문학작품선독 교재를 편찬해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문학사 교육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 예컨대 문학사 기술 방법, 문학사 교육용 작품 선정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론적 연구의 뒷받침 없이는 중국 대학생에게 맞는 진정한 문학사나 문학작품선의 편찬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 대학생을 위한 문학사 교육용 작품 선정 연구를 시도한 본 연구는 抛砖引玉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본 연구는 선정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 문학사 연구 서적을 살피기보다 중국에서 출판된 기존 문학사 교재 및 문학작품 선독 교재 및 한국에서 출판된 중국인 대상 문학사 교재 총 11종(12권)에 수록된 작품을 한국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13종/13권)와 『국어』(16종)에 수록된 관련 작품과 대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대조 분석 결과를 한국 현대 문학사 시대별 창작 경향과 대조하여 선정 필요한 작품을 선출하고 보완되어야 할 작품 유형을 제시하고, 다시 한국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전체 수록 작품 목록과 대조하여 보완되어야 할 작품을 선별해 냈다. 이렇게 해서 교수 강의할 작품 21편, 학생 발표 작품 22편을 선정해 냈다.

본 연구는 실제 교수에서 진정으로 활용이 가능한 문학사 교육용 작품 목록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다만, 70년대까지의 작품에 대한 문학사적 연구가 많으므로 작품 선정에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1980년 이후의 작품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작품의 창작적 경향도 점점

다양해졌기 때문에 선정 작업이 쉽지 않았다. 창작적 경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분류,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 및 특징을 밝히는 연구 성과가 풍부해야만 작품 선정 기준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국 『문학』 교과서의 수록 작품만을 참조하여 1980년 이후의 작품 목록을 선별해 냈지만 향후 이 시대에 관한 많은 문학사적 연구를 참조하여 재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음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 참고문헌

### [중국 내 한국 문학사 교재]

- 金炳珉 외(2004), 朝鮮·韓國當代文學史, 昆侖出版社.  
金英今(2009a), 韓國文學簡史, 南京大學出版社  
金英今(2009b), 韓國的文學, 北京大學出版社  
金英今(2010), 朝鮮·韓國當代史(하),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김윤식 외 공저, 金香·張春植(2000), 韓國現代文學史, 民族出版社.  
김춘선 외(2002), 조선-한국 당대문학개론, 民族出版社.  
김춘선 외(2009), 조선-한국 당대문학개론(개정판), 民族出版社.  
김춘선 외(2012), 한국현대문학사, 民族出版社  
尹允鎮 외(2008), 韓國文學史, 上海交通出版社  
임국웅(2013), 한국문학약사,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조동일 외 공저, 周彪·劉鈞擴 공역(2003), 韓國文學論綱, 北京大學出版社  
何鎮華(2008), 朝鮮現代文學史, 中央編譯出版社  
韓衛星 외(2006), 韓國文學簡史與作品選讀, 大連理工大學出版社.

### [한국에서 출판된 외국인을 위한 문학사 교재]

- 배규범 외(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근현대문학사, 하우 도서출판.  
이선이·구자황(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 현대문학 산책, 한국문화사.  
이선이·김현양·채호석(201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사, 한국문화사.

### [중국 내 한국 문학작품 선독 교재]

- 金京善(1998), 韓國文學選集,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金英今(2008), 韓國文學作品選讀(상, 하),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金學鐵(2011), 韓國現代文學經典解讀, 北京大學出版社  
徐永彬(2004), 韓國現代文學,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신창순(2007),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민족出版社  
尹允鎮 외(2006), 韓國現代文學作品選, 上海交通出版社  
尹海燕(2006), 韓國現代名詩選讀, 民族出版社  
리민덕(2008), 한국문학작품선집, 연변대학교 출판사.  
全龍華(2011), 韓國文學作品選讀, 연변대학교 출판사.  
韓梅·韓曉(2009), 韓國文學作品選讀,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韓梅·韓曉(2010), 韓國現代文學作品選讀, 北京大學出版社

[한국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 고형진 외(2012), 문학(2), 천재교육.  
권영민 외(2012), 문학(2), 지학사.  
김윤식 외(2012), 문학(2), 천재교육.  
박영민 외(2012), 문학(2), 비상교육.  
박중호 외(2012), 문학(2), 창비.  
우한용 외(2012), 문학(2), 두산동아.  
유병환 외(2012), 문학(2), 비상교육.  
윤석산 외(2012), 문학(2), 교학사.  
윤여탁 외(2012), 문학(2), 미래엔.  
이승원 외(2012), 문학(2), 좋은책 신사고.  
정재찬 외(2012), 문학(2), 천재교육.  
조정래 외(2012), 문학(2), 해냄에듀.  
최지현 외(2012), 문학(2), 지학사.

[한국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 김대행 외(2012), 국어(상, 하), 천재.  
김병권 외(2012), 국어(상, 하), 더텍스트.  
김종철 외(2012), 국어(상, 하), 천재.  
문영진 외(2012), 국어(상, 하), 창비.  
민현식 외(2012), 국어(상, 하), 좋은책신사고  
박갑수 외(2012), 국어(상, 하), 지학사.  
방민호 외(2012), 국어(상, 하), 지학사.  
박영목 외(2012), 국어(상, 하), 천재.  
박호영 외(2012), 국어(상, 하), 유웨이.  
오세영 외(2012), 국어(상, 하), 해냄.

- 우한용 외(2012), 국어(상, 하), 두산동아.  
윤여탁 외(2012), 국어(상, 하), 미래엔.  
윤희원 외(2012), 국어(상, 하), 금성.  
이삼형 외(2012), 국어(상, 하), 디딤돌.  
한철우 외(2012), 국어(상, 하), 비상.  
조남현 외(2012), 국어(상, 하), 교학.

**[교육과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51쪽, 58쪽.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국어과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79쪽, 93쪽.

**[논저]**

- 권영민(2002),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66쪽.  
김대행(2001),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학”,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4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자과정.  
김보경(2003),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수필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김승환(2002),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한국문학교육 방법론”, 효과적인 한국어 보급과 지원 체제의 활성화 방안, 제3차 한국어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73-79쪽.  
김연실(2009), “외국인을 위한 문학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청아(2011), “한국어 문학읽기 교재구성 방안 연구: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영(2011), “한국어 교육에서 수준별 시 텍스트 선정을 위한 연구-텍스트 위계화를 위한 변인에 대한 고찰”, 한국어 교육 제 22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남 연(200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읽기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3, 국어교육학회.  
남 연(200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 교재 편찬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1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논문집.  
남 연(2010),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학교육학 35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61-265쪽.  
남 연(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사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23-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8-160쪽.  
남 연(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교육의 작품 선정 연구”, 선청어문 제40

집, 779-789쪽.

- 박인기(2001), “문학을 읽는 이유”, 문학과 문학교육연구소 편, 문학의 이해, 삼지원. 20쪽.
- 박미향(2011),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현대시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 청(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교육 연구 방안: 메밀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의연(2012), “한국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빈(2001),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학교재 개발방안”,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토론회 논문집.
- 서희정(200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전 서사문학 작품 선정 방안”, 고봉논집36집, 경희대학교.
- 신윤경(2008),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 : 문학 텍스트 선정기준과 교수 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경희(2003), “수필을 통한 한국어교육방안: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 전(2011), “시를 매개로 한 한국어 읽기교육의 활성화 방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방법”, 국어교육연구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윤여탁(2000), “한국어교육에서 현대 문학 정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윤여탁, 유영미, 박은숙(2015),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하우.
- 윤 영(1999), “외국인을 위한 소설교육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정기철(2001),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215-230.
- 장정숙(201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단편소설 선정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해권(2011),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작품의 통합적 위계화 방안”, 한국어 교육 제 2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지수용, 배규범(2013), “중국 대학교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한국문학 교재 개발 방향”,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당면한 과제 학술 회의 논문집.
- 최은영(2005), “수필을 활용한 한국 정신 문화 교육 방안 연구-재미동포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서연(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분류 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Raymond J. Rodrigues · Dennis Badaczewski(1979), 박인기 · 최병우 · 김창원 옮김  
(2001),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이정, 31쪽.

남연

(100-871) 중국 북경시 해전구 이화원로 5호

북경대학교 조선(한국)언어문화학부

전화번호: 86-10-62754941

전자우편: helenenan@hotmail.com

접수일자: 2015. 06. 30

심사일자: 2015. 07. 23

게재확정: 2015. 08. 11

